

# “민생 살린다면 야당이 정국 주도해도 좋다”

### 이인영 민주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주재...국회 정상화 촉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예방...“野 목소리 경청...5월국회 열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날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에 유연한 협상에 나설 의지를 밝히는 등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업자와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며 “개인적으로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야당이 주도하는 것들도 좋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목표로 한국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경청의 협치 정신을 견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황교안 대

표는 어제 거제 조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는데 신속한 추경 처리의 집합이야말로 해결의 핵심 열쇠”라며 “오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단도 출범하는 만큼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민생 문제 해결에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 회복과 포용적 혁신경제 구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쉽지 않았던 것들을 관 개력, 경제활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의 디딤돌 놓기,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한반도 평화 새 시대 개막을 4대 성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견례를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처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나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치) 정국을 푸는 지혜를 주시면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며 “산불이나 지진 등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할 일들이 있는 만큼 경청을 하겠다. 가능하면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말씀이든 주시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되는

게기가 되면 좋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한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선 “결국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패스트트랙 제도가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덕담도 오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세 분 가운데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이라며 “이 원내대표께서 국회 연구단체를 만들 때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두 번도 안 묻고 이름을 빌려드렸고, (함께) 17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이에 “나 원내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로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기대가 크고 응원도 많이 한다”고 화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유시민-심재철 40년 전 진술서 공방

### 운동권 선후배들 “심재철이 배신” 유시민 손 들어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1980년 서울의 봄 진술서 공방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유 이사장이 지난 4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장문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했고 또 비밀 조직에 속한 동지들을 지킬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당시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이 당시 동지들을 밀고했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특히, 심 의원은 6일 유 이사장이 쓴 진술서의 원본 사진을 공개하며 “1980년 6월 11일 유시민의 진술서로 행적이 밝혀진 77명의 학우 가운데 미체포된 18명은 그의 진술 직후 지명수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지난 7일 “진술서는 앞부분부터 다 거짓말이다. 모든 일을 학생회 간부가 다 한 것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당시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운동권 선후배들은 유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심 의원의 서울대 후배인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시킨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유죄판결에 있어 핵심 법정 증언이 바로 형(심 의원)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또 심 의원과 서울대 동기인 유기홍 전 의원은 편지 글을 통해 “나도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갔지만, 당시 비공개 지도부 ‘무림’의 일원이었던 내 신분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유시민은 모든 일을 밖으로 드러나 있던 공개지도부로 돌리고, 비공개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옹호했다.

유 이사장과 심 의원의 서울대 선배인 양민호 한반도광물자원연구원 이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심재철은 이미 오래 전에 민주화 동지들을 배신한 정치인”이라며 “심재철이 어떻게 1980년대 초 MBC에 기자로 입사하게 되었는지 그 것부터 미스터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유 이사장과 심 의원은 운동권 동지였다. 1980년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다녔던 심 의원은 총학생회장이었고 경제학과 소속 유 이사장은 총학생회 대의원의 일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학생회를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비밀조직인 농법학회 소속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시 서울대 북학생협의회 회장으로 이들과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진 분수령은 서울의 봄이 끝나고 대대적인 검거령이 내려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평화당 새 원내대표 13일 경선으로 선출

민주평화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 합의를 주도해 나섰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오는 13일 경선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합의를 주도해 노력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대로 경선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자 공모 재공고를 하고 내일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오는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유성열 의원과 황주홍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이 파격적으로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관측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86세대인 이인영 의원이 대세를 잡자고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내부 동력을 마련한데 반해 평화당에서는 별다른 변화의 모습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평화당은 지난 7일 의총에서 새 원내대표로 천정배 의원을 합의를 주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본인이 극구 고사한데다 장병안 전 원내대표도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강기정 靑 수석 “여야정 협의체 제도화 해달라”

### 이인영 민주 원내대표 예방 문 대통령 축하난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국회 본청의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꽃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며 “대통령의 마음이 오신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원칙 있는 통합주의자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정청 원팀도 만들어주시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상설화와 제도화에 도달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해 11월 첫 여야정 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분기마다 한 번씩 열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후속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수석은 또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마음이 급하고 (대북) 식량 지원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문제를 잘 다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추경은 시점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 받고 있다.

있어서 분리 추경 같은 수정안을 다시 내는 방식은 힘들다”며 “추경을 심의하면서 조금 조정하면 몰라도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백그라운드(배경)를 제가 (이 원내대표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또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더라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신다”며 “국회 규칙에 박아버리는 방법이 있지만, 국회법도 안 지키는데 국회 규칙이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제3지대론’ 사라질까

### 바른미래 내분 일단락...총선 앞 정치적 생존 관건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로 분당까지 거론됐던 바른미래당의 내분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제3지대론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길 전망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어떤 형태로든 통합, 선거 연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일각에서는 제3지대론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경정 구도를 펼치기 위해서는 평화당과 미래당 등이 제3지대에서 통합, 품집을 키우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이 과연 올 추석까지 ‘단일대우’를 유지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제3지대론을 토대로 하는 정계개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내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분할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바른정당계파 보수에,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은 중도·진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까지 함께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내주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갈등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계파간 표 대결로 흐를 경우 다시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히, 선거제도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던 바른정당계파 원내대표 선출된다면 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생존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기호 3번을 달고 내년 총선에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제3지대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올 추석 이전 바른미래당 발(發) 정계개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역 기업에 지역의 인재를!

1972년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로 출발한 나주공업고등학교는 기계·전기계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모듬교육을 통해 학생의 진로 결정을 지원합니다.

학교·교육청·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수기업에서 지역 인재가 자리잡고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학생, 할 줄 아는 학생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 전기과

- 교육과정 : 전기 내선공사 및 전기기기 제작, PLC-공유압 이용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공유압, 생산자동화, 송강기, 전기, 전기기기
- 직무 가능 유형 :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 내선공사시공, 전기전자 설비유지

### 기계과

- 교육과정 : 기계가공 기술 이용 가공조립, 설계 용접 및 특수용접 기술 이용 시공 및 설치
- 취득자격(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설비보전, 용접, 컴퓨터응용밀링, 특수용접
- 직무 가능 유형 : 부품제조 및 가공, 기계조립, 용접, 기계설치 및 정비

### 금형과

- 교육과정 : 2D 및 3D 기계설계 기술 이용 설계 MCT 및 CNC 공작기계 첨단 가공
- 취득자격(기능사) : 컴퓨터응용 밀링, 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CAD)
- 직무 가능 유형 : 기계설계, 금형제작, 부품가공, 기계설치 및 정비

### 우리학교 전체 학생 대상

- 교육과정 :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모듬 교육과정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지게차, 굴삭기,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기능사, 한국사 자격증을 재학생 70%이상 취득
- 직무 가능 유형 : 현장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융합직무교육

- 학교와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기업 맞춤형 산업체 기능요원 병역특례과정 특성화고 인력양성 과정
- 공공기관·대기업·공무원반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 학생이 행복한 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교육과정
- 설계, 3D모델링, 컴퓨터활용능력, 사무행정업무를 위한 여학생 사무직 교육과정
- 기계설계/CAD, 배관, 냉동기술 직종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양성 기능영재반
- 전남교육청 개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취업과정 JOBS 교육과정
- 대한민국 명장에게 배우는 현장실무 교육, 배관설비 CEO양성 명장공방 봉사단

(58246) 나주시 건재로 43 (대호동) 나주공업고등학교 tel:(061) 332-3914(교무실), 3911(행정실) / fax:(061) 333-0743